

믿음의 세 단계

Three Steps of Faith

베드로후서 3: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5월 15일 설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생명은 움직임

사람이나 동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 방법이 뭘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지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죽었으면 안 움직입니다. 반대로 살았다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는 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맥박을 짚어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거나 코에 손을 대 허파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움직인다면 다른 부분도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은 거지요.

산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게 뭘니까?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달라진다는 거지요. 변화입니다. 살았으니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지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시작이 있습니다. 생명 아니던 것이 생명이 됩니다. 물론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처음 생명을 만드실 때 그렇게 생명이 대를 이어 가게 하셨습니다. 식물의 경우 씨는 살아있는 게 아니지만 알맞은 조건이 주어지면 그 씨가 싹을 틔우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생식능력이 있어서 암수가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살았다는 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살았느냐, 몇 살이냐, 하고 늘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건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아주 작습니다. 게다가 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자라면서 덩치도 커지고 생김새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 가고 구조도 복잡해져 가는 과정을 보통 뭐라 부릅니까? 성장이라 하지요? 자란다는 말입니다. 두어 주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 죽순이 많이 났다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벌써 제 키보다 더 자란 것도 많습니다. 키만 큼니까? 아랫부분은 벌써 대나무 모양을 제법 갖추었고 가지도 벌써 나기 시작합니다. 커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거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덩치도 커지고 생김새도 복잡해진다,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없던 생명이 새로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것 역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순간을 성경은 태어나는 순간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다시 태어난다” 또는 “거듭 난다”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없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는 뭘겠습니까? 자라야 되겠지요. 자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젖에다 비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성경 곳곳에서 아이로 있지 말고 얼른 자라 어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고전 14:20; 엡 4:14; 히 5:12-13).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왜 얼른 자라야 된다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믿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남만 힘들게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참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라 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걸 보통 몇 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 그 다음에는 어린이, 소년소녀, 청년, 그러다가 어른이 됩니다. 어디가 정확히 갓난아기이고 어디부터가 청년이고 하는 구분은 분명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아이하고 청년은 분명히 다릅니다. 청년하고 어른도 다르지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내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얼마나 더 자라야 되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감성적 단계 (피부)

믿음의 첫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사람에 비긴다면 막 태어나서부터 소년이 되는 단계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감성적인 단계입니다. 감성적이라는 말인데 이 단계에서는 보통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지고 뭘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상황에 따라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몇 해가 못 되어 집사 임명을 받더니 얼마 뒤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데 들어보니 참 간단합니다. 이 분이 돌을 재료로 하는 조각가인데 먹고사는 게 참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왔습니다. 작업장으로 쓰려고 빛을 내어 사 둔 땅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뒤 얼마 안 되어 그 땅 앞으로 팔차선 도로가 난다는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었답니다. 한국은 도로만 나면 땅값이 금값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이 생겨서 작품을 좀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국 건축법이 바뀌어서 큰 건물에는 반드시 예술작품을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큰 건물에 설치할 예술작품이 조각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건축업자들이 이 분을 찾아와 작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금방 유명해졌지요. 이 분 부인은 또 부인대로 재테크를 좀 한 모양인데 아파트가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분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이건 좋은 경우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한 행복한 어린아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우기며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고전 3:1-4). 사람을 영웅처럼 추종하는 건 어린아이 때 로봇태권브이나 마징가제트를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났다고 우기는 건 트럭 운전수 아들이 자가용 가진 집 아들한테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기는 왜 싸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 싸웁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었다 합니다.

이 첫 단계는 “그래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다 하는 걸 막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고 안 믿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돈을 주셔도 감사, 건강하게 해 주셔도 감사입니다. 잘 안 되면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금방 불평이지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어린아이 투정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맛있는 것 먹여주고 재미있게 놀도록 해 주면 행복해합니다. 사 달라는 장난감을 위험하다고 안 사 줘 보세요. 위험하다 어떻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이들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자극 오는 대로 반응하는 걸 보면 거의 동물 수준입니다.

이런 첫 단계에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짜인 경우에는 곧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 버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지요? 거기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긴 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해서 꼭 감옥에 쳐 넣고 고문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병이 나는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이민 와 사는 경우 더 그렇지만 사는 것 자체가 뜻대로 안 돼 힘이 들기도 합니다. 뭐가 생기면 기분 좋고 안 생기면 기분 나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세 박자로 잘 굴러가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빠격하면 불평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침체를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2. 그럼 그렇지: 생각하는 단계 (지성)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이렇게 편 갈라 싸우는 것도 갖난아기고, 이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하는 것도 아직 어린 단계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이야기라야 됩니다. 예수를 몇 해나 믿었는데도 아직 이 단계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청년 단계입니다. 이지적이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많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답도 열심히 찾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지금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잘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으니 일단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얼마지 않아 하나님이 어려움도 없애 주시고 그 동안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까닭도 알려 주십니다. 그럼 그렇지!

새옹지마 단계입니다. 새옹지마 아시지요? 국경선 가까이 살던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국경선을 넘어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큰 재산을 잃은 거지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니까 이게 득이 될지 누가 아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그 말이 아주 멋진 말을 한 마리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니까? 사람들이 앞 다투어 축하해 주자 이번에는 꼭 잘 된 일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그 사람 아들이 새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니까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쳤다고 꼭 나쁜 건 아닐 거다. 그런데 이웃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마을 장정들이 싸움을 벌이다 거의 죽었는데 그 노인 아들은 다리를 다쳤으니 싸움에 못 나가고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우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만 지금 겪는 고난이나 슬픔에도 다 뜻이 있고 이 아픔 역시 나중에 큰 유익으로 판명될 것이라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 고난의 뜻 고난의 유익이 금방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바르게 살아 인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 준 뒤에도 감옥에 두 해나 더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비로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고 꿈을 풀어준 뒤 그 나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흉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인신매매를 당해야 했는지, 왜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었는지, 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지, 감옥에서는 왜 또 그렇게 오래 있어야 했는지, 그 때는 몰랐지만 총리가 되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럼 그렇지! 총리가 되어 식구를 먹여 살리라고 그런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믿음이 있어 좋지만 그 답을 금방 알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지금의 고난이 반드시 더 멋진 영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손뼉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간증도 많고 할렐루야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데 좋고 나쁜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이릅니다.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확실하게 깨달은 거지만 우리가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 가운데는 엉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닌데 내 얕은 눈으로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니 좋긴 좋지요. 하지만 진짜 감사의 이유가 아닌 걸로 감사하니 아직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단계에서는 감사할 이유보다 감사 못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니까요. 납득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3.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 (사랑)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자라야 됩니다. 둘째 단계에 머무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이 막히지요. 조금 가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 있습니다. 거기부터는 풀립니다. 막힌 이유가 설명이 되지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막히던 길이 뚫렸는데 도대체 왜 뚫렸는지 왜 막혔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한 두 달 주시다가 금방 없애고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왜 고생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갖다 대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 자립심 길러 주시려고 부모님을 일찍 데려 가셨구나 하겠습니까?

더 자라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단계에서 “그럼 그렇지” 하는 단계를 거쳐 마지막 도달해야 할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단계, 다른 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단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아니 이 아픔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단계는 어른이 된 단계입니다. 내 속이 믿음 하나로 가득 차 그 믿음이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삶을 주도하는 단계입니다. 딱 주시면 기분 좋고 매 주시면 화나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깨닫는 하나님은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 45:15). 내가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하도 풍성하고 깊어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롬 11:33).

이 단계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바빌로니아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누구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상에 절을 안 했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 신상에게 당장 절을 하지 않으면 즉각 풀무에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18).

그래서 믿는다 하는 단계라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신상에 절을 할 것입니다. 풀무에 타 죽는 건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둘째 단계까지 자랐다면 일단 절을 하지 않고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 풀무에 들어가도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풀무에 들어가 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개죽음이 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닌데 정말 죽어 버렸으니 내가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혹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풀무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 내시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또 하나님 영광도 드러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 그대로 타 죽는 게 우리한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입니다. 설명이 안 돼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이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열른 도달해야 할 어른의 단계입니다.

어른이 되라

사람이 태어나면 자랍니다. 왜 자람니까? 어른이 사람이니까 자랍니다. 갓난아이도 청소년도 아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입니다. 어른으로 자라는 게 목표인데 도중에 멈추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갓난아기 상태로 있지 말고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라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몸이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규칙대로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시켜야 되지요.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자주 비기고 있습니다 (고전 3:2; 히 5:12-13, 벰전 2:2).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참을 줄 알게 됩니다. 포기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다 싶은 분들 있지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해째인데 아직도 여기일까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먹어야 자라니까 안 자란다면 이유가 분명하겠지요.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 안 자랄 밖에요.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집에서는 먼지 보관소로 쓰다가 주일 아침에 혹 불어 갖고 오지요. 요즘은 화면이 뜨니까 그마저 안 갖고 와도 됩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도 하고 그걸로 모자라 교회에 나와서 듣고 또 배워야 되는데 주일날 한 구절 읽고 들어 가지고 어떻게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영양실조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요?

올해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해 가면서 읽으시면 연말쯤에는 아마 많이 자라 있으실 겁니다.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더 튼튼하게 더 크게 자라겠지요. 올해는 구약 통독을 하지만 앞으로 해마다 성경읽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남들이 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편입니다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제가 개성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고난의 뜻

그런데 첫 단계에서 둘째 단계로 자라는 건 말씀만 갖고 됩니다. 그렇지만 둘째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 자라는 건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쓰시되 우리 생활 속에서 쓰셔야 세 번

째 어른 단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납득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단계까지 자라도록 하시려고 쓰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아프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시쳇말을 쓰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아픔입니다. 그로우잉 페인, 성장통이라 하지요. 어렸을 때는 몸이 빨리 자라다 보니 몸이 아프고 더 큰 뒤에는 마음이 자란다고 또 마음이 아픔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란다고 아프지만 거꾸로 아프기 때문에 더 자라는 면이 많습니다. 아픔을 모르고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몸의 아픔과는 달리 마음의 아픔은 사랑에서 오는 거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도 하는 이유가 다 사랑 때문인데 이 세상에 죄가 많다 보니 사랑이 아픈 사랑이 됩니다. 죄와 사랑과 아픔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 119:67). 고난을 당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 이제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내가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 죄와 무관하게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다 사랑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배운 만큼 또 어른이 됩니다.

사랑으로

두 주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영어설교를 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랑이 곧 어른입니다. 자라야 된다 하셨는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까닭은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거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삶 가운데서 아픔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니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줄 알게 됩니다. 조금 전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픔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아픔이 죄에서 온 것인 줄도 알고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고 이 죄 때문에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인류에게 아픔이 있는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만큼 나도 자랍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요.

우리 다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자라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달으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가능합니다.

결국 자라는 건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은 늙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에는 노화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청춘이요 자라기만 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 갑시다. (권수경 목사)